

전북파라미타 청소년 모악축제

‘맑은 세상을 청소년에게’ 김제 금산사서



전북 청소년들의 한마당인 ‘제12회 청소년 모악축제(사진)’가 김제 모악산 금산사에서 5월 24일 열렸다. 전북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원행)가 주최하고 파라미타청소년지도교사협의회(회장 박상석)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전북 지역 중·고등학교 지도교사와 파라미타 회원 800여명이 참가해 문예부문(문문·산문)과, 사생부문(한국화·서양화), 음악페스티벌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음악페스티벌에서는 사물놀이, 국악, 단체댄스, 마술 등 파라미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익힌 개인기들이 펼쳐졌다.

금산사 총무 원혜 스님은 “모악산 금산사는 교육 교화, 포교의 중심도

량으로 대중불교, 지성불교, 희망과 용기, 원력이 융합되는 청소년 불교를 구현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청소년들에게 참여와 수행의 기회를 마련해 왔다”며 “청소년 여러분의 꿈과 낭만과 호연지기를 한껏 키우고 자신이 가진 솜씨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오래 오래 아름답게 기억하고 싶은 추억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운문부 대상은 송현숙(서전주중), 김보한(전라고), 산문부 대상은 김동희(진안여중), 손은별(금산고), 사생부 대상은 오지원(진안여중), 최혜한(덕암정보고), 음악페스티벌 대상은 익산 남성여중 댄스팀이 차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미국산 쇠고기 반대”

호남 불교계 광주불교교육원서 기자회견



5월 26일 광주불교계는 광주불교교육원에서 ‘미국산 소고기수입중단’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강행에 전국적인 촛불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호남 불교계도 “미국산 쇠고기 반대”를 위한 한 목소리를 냈다.

광주 불교계는 5월 26일 광주불교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강력 촉구했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정인)와 광주불교환경연대, 광주불교교육원, 호남불교문화원 등이 참여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광주불교도 모임’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라 ▲이명박 정부는 겸허하게 민의를 받아들이라 ▲잠못입 협상과 정부 고시를 당장 철회하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발표했다.

개방 고시를 철회하고 재협상하라고 촉구했다.

전북 종교인들은 “정부는 국민의 정당한 요구에 응해야 하고, 우리 성직자들은 민심이 천심임을 믿는다. 국민의 행복과 희망이 되실러지는 그날까지 함께 기도하며 연대할 것”이라며 말했다.

정인 스님(광주불교사암연합회장)은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보살행이다. 지금은 고통 받는 중생을 위해 불교도들이 보살행을 실천할 때”라며 “민심과 이반된 정부의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 불교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위해 시국토론회 및 촛불집회 등을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조동제 전북지사장

“청소년 포교 없이 한국불교 미래 없어”

우리지역 부부나혼자

전남파라미타청소년협회 김재기 사무국장



“개신교가 드센 전남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포교활동이 넉넉한 일이 아닙니다. 불자들(특히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포교를 할 것인가는 제게 큰 화두입니다.”

순천에는 “전남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종산, 이하 전남파라미타)의 김재기 국장을 모르면 불자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김재기 국장의 불교활동은 유명하다.

김 국장의 불교관련 이력에는 그가 얼마나 불교에 쏟은 정열과 애정이 엿보인다. 순천 고등부 불교학생회 회장을 시작으로 대불련 순천지부장, 대불청 순천지부, 월간 대원, 균종평, 순천불자연합회 기획단장, 도서출판 칠엽굴 대표, (사)전남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사무국장 등 순천지역 불교계의 정구코스(?)를 밟은 사람 중 하나다.

청소년 포교는 포교사들 사이

비불자들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김 국장은 “특히 청소년들이 불교와 쉽게 친해질 수 있는 독서토론, 종이접기, 다도교실, 요리교실, 영어교실 등을 열고 싶다”며 전남 지역 스님과 재가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김 국장은 청소년 포교뿐 아니라 신행활동에도 열심이다. 그는

고교시절부터 불교에 대한 열정 보여 인터넷 불교관련 카페서 사이버 포교도

에선 “포교의 시작이자 끝”이라 불린다. 김재기 국장이 전남파라미타 발족과 함께 청소년 포교의 길에 들어선 것은 그의 이력으로 볼 때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전남파라미타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14번째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지부가 됐다. 산하에는 순천지회와 나주지회가 있고 순천과 나주, 여수지역 학교와 사찰학생회 9곳을 분회로 두고 있다. 초등 350명, 중등 150명, 고등 100여명 등 600여명 회원들을 둔 전남파라미타는 회장인 종산 스님을 비롯해, 부회장 원광 스님(나주 심향사 주지), 사무총장 대요 스님(화엄사 포교국장), 김재기 사무국장과 박병열 간사가 임원진을 구성한다.

김재기 국장은 “네티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부모와 함께하는 지역문화제 애호활동과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교의 미래 이끌 동량 키우립니다”

전북 파라미타청소년협회 교사협의회 박상석 회장

“우리 지역이 비록 교세는 약하지만 청소년 파라미타 활동은 전국 어느 지역에도 뒤지지 않을 겁니다.”

1996년 창립 후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는 전북파라미타 7개 지회와 120개 학교에서 모두 140명의 지도교사와 1400명의 학생회원을 이끌고 있는 박 회장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친다.

박 회장은 “청소년들에게 고운 심성을 길러주고 다양한 문화교육을 충족시키도록 지도교사들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된 ‘청소년 모악 축제’는 어느새 12번째를 맞았다. 1997년 작은 백일장으로 시작된 행사는 지금은 도내 청소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대표축제가 됐다. 전북파라미타는 지도교사들을 위해

자기계발과 신심교류를 할 수 있도록 2년의 수련회와 산사체험·해외 문화 답사도 추진 중이다.

박상석 회장은 “교세가 취약한 지역특성상 타종교로부터 불자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타종교의 막무가내식 선교활동으로 불자청소년들이 타종교로 이탈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모악축제’의 뒷정리를 위해 자리를 떠나는 박 회장의 걱정은 단지 전북지역만의 고민은 아닐 것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절 불사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남원 실상사, 사찰불사 관련 세미나 개최

“우리나라 절 불사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지리산 실상사(주지 재연)는 5월 24일 남원시 산내면 복지관에서 ‘우리나라 절 불사의 성찰과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2008년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세미나는 도법 스님(생명명화경사 순매단장)의 ‘사부공동체로서의 가람’ 발표로 시작됐다.

도법 스님은 1200년전 흥취 스님은 “행복한 삶과 세상을 꿈꾸는 이들에게 꿈을 이뤄주고자 실상사를 창건했을 것”이라며 “불교계를 비롯한 현대사회는 무위자연의 존재, 나와 이웃, 상대의 존재의미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문제 해결을 위해 불교사를 관통하는 문제

의식과 시대정신의 문제의식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사와 조경’을 발표한 홍광표 교수(동국대)는 “유형, 무형의 불교 문화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라고 전제한 뒤 “확실한 조사 후 복원불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홍선기, 김재는 연구원(목포대 도서관화연구소)과 함께 ‘생태계와 문화의 눈으로 본 우리나라 절 불사’를 발표한 조경만 교수(목포대)는 “삼라만상의 변화무쌍한 존재들이 가진 상대적 가치들을 인정하고 그 상대적인 것들이 조화롭게 연방을 이뤄 창발의 세계가 구현되길 바란다. 세상의 모든 일이 불사와 같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무주 안국사

‘태권도와 함께하는 ...’

무주 안국사(주지 도안)는 6월 7-8일, 14-15일 2차례에 걸쳐 태권도 수련과 함께하는 사찰체련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제12회 반딧불 축제와 함께 안국사와 무주군이 함께 마련한 이번 템플스테이는 잊혀진 전통문화의 향훈과 자연과 하나된 마음을 통해 본래 내 모습을 찾고자 마련됐다.

도안 스님은 “템플스테이에 무도인 태권도를 접목했다. 태권도 중추국 국민으로서 애국심과 애항심을 배양해 풍요로운 마음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전북지사: (063)910-5199

화중생연 육신등공 소신열반 제10주년

총담대선사 추모 영산대재

서울 승가사 (한국불교태고종 창종등록 제1호 사찰) 이전 기공식



총담대선사 소신공양 장면

雲遊虎鳴山 甘露老納子
奉獻三寶前 本願燒身供
報佛慈悲恩 以因緣功德
國泰民安面 佛法重興隆
若問如何是 皆應無所住

- 총담대선사 열반송 -

귀의삼보하옵고, 태고종 승정 총담대선사께서 화중생연하시고 육신등공으로 소신열반에 드신지 올해로 10주년이 되었습니다.

대선사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무인년 윤 5월 4일 새벽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호명산 감로사 미륵대불 아래에서 홀로 시방의 불보살님께 예경한 뒤 나뭇단과 숲을 쌓고 그 위에 가부좌한 채 심이광불을 염송하시며 삼매의 불을 일으켜 경전 속에서만 전하여지던 미증유의 소신공양을 평소의 서원대로 감행하셨습니니다. 그러나 대선사께서 소신공양을 올리시면서 원으로 세우셨던 중생의 고통치유와 불교계의 화합, 그리고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은 아직도 진행형으로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대선사의 문도를 비롯한 후학들은 그 유지를 받들어 대선사께서 세우셨던 소신공양의 원력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뜻과 의지를 다지고자 소신열반 10주년을 맞이하여 추모영산재를 봉행코자 합니다. 아울러 대선사께서 67년 전 광복의 염원으로 창건한 왕십리 승가사가 재개발로 인하여 철거됨에 따라 호명산 감로사로 이전하는 기공식도 함께 봉행코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불기 2552년 6월 7일(음. 5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
- 장소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산 1-4 호명산 감로사
- ※ 오전 11시부터 시련, 대령, 관옥 등 영산재가 식전행사로 봉행되오니 스님과 신도님들은 영산재에도 참가하시어 무량의 공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 ※ 교통안내 : 서울 왕십리 승가사에서 오전 9시 관광버스 출발 승용차로 오실 경우 춘천가는 길 청평검문소 지나 첫 번째 신호에서 우회전하여 호명산 감로사 이정표 따라오시면 됩니다.

문의전화 : 02)2292-3418, 2282-3418, 031)584-0117(감로사), 011-722-3418
카페 : http://cafe.naver.com/kamrosa.cafe

서울 승가사 · 호명산 감로사 주지 이지성 합장